

선악과 사건과 생로병사의 윤회

인간은 원래 생로병사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이었다

생로병사의 윤회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이다. 생로병사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인간에게는 결코 행복과 만족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생로병사의 고통은 인간 본래의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이다.

생로병사의 원인

그렇다면 이러한 생로병사의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성경은 원래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남과 여의 이원적(二元的)이 아닌 일원적(一元的)인 존재였으며, 악한 것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었고, 슬픈 것도 몰랐고, 괴로움과 고통도 모르는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의 하나님의 신이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마귀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에게는 고통과 괴롭이 들어오게 되었다. 즉 선악과를 먹기 전의 아담과 해와의 상태와 선악과를 먹은 후의 아담과 해와의 상태를 비교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간이 현재 처한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 먹도록 놔둔 이유

기독교회 목사들은 선악과가 세상의 과일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 먹으면 죽을 독약과 같은 것을 어린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노는 방가운데 놓아두고 이걸 먹으면 죽으니 먹지 말라고 이르며 밖으로 나갈 부모가 없듯이 선악과는 과일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미리 치위버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선악과가 세상과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제거하실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원수마귀였던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든 것을 보고 마귀가 들린 술객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던 것을 보아 마귀는 모방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을 꺾으려는 상대적인 마귀가 모방력으로 아담과 해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니 아담과 해와는 자기와 똑같은 모습에 아무 경계심도 없이 마귀를 바라보는 순간 마귀 영에게 점령당하여 포



▲마귀의 영이 되는 선악과를 없애면 생명과가 나온다(사전 속 빛 : 선악과를 죽이는 생명과)

로가 되고 종이 되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한 마귀가 아담 해와에게 나타났을 때에 마귀를 바라봄으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마귀 영이 들어오는 순간, 이와 같은 인간 몸으로 화해진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해와의 상태

선악과를 먹고난 후의 아담과 해와에게는 첫째, 해산, 즉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일, 노동을 하여 먹을 것을 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셋째,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창3:7, 3:16-19).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자식을 낳지 않았을 것이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에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유추하여 우리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해와의 생활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난 이후부터 웃을 걸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들이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으나, 선악과를 먹고난 이후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이것은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구 땅에 아담과 해와 단 둘뿐인데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에 웃을 입게 되었겠는가?

이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형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인간 몸으로 화하여 남자 여자로 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앞이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렸

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을 지배하던 만물의 영장이 남자 여자로 변신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마귀의 속성인 음양, 암수로 변화여버린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후 육신을 입게 되었다

선악과를 먹고난 이후부터 아담과 해와는 지금과 같은 육신을 입게 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아담과 해와의 상황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1:26-27)”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과 똑 같은 형상이었던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빛이요, 빛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기 전에는 이 우주는 온통 빛의 세계였다. 이 우주만 빛이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아담과 해와도 빛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처음부터 육신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난 후부터 현재와 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육신을 입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급기야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악과를 제거하면 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해와가 신에게서 인간으로 전락된 사건이며, 인간 불행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동산에서 살았다. 에덴동산이 낙원이요 천국이니, 천국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이므로 천국은 하나님만 있는 곳으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기 전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완전 자유체요, 영원성을 지녔던 신,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 상에 나타난 구원은 인간 본래의 존재인 하나님이 다시 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논한 것이지, 인간의 구원을 논한 것이 아닌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이 양심으로 남아 있는 하나님에게 한 말이지,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에게 한 말이 아닌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주체도 하나님이요, 부활도 ‘나라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부활을 논한 것이요, 영생을 얻는 주체도 하나님인 것이다.

그러니까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로 하늘 꼭대기에 앉아 우주와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인 것이다. 선악과를 먹어서 신에서 인간으로 전락되었으니, 아담과 해와가 먹은 선악과가 피를 통해서 유전되어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 있는고로 그 선악과만 제거해버리면 다시 하나님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상의 구원이자, 누구를 만다가 죽어서 천당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상의 구원이 결코 아니며, 그것은 또한 우리 모든 인류가 납득할 만한 보편적인 구원론이 될 수가 없다.

선악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이 왔으므로 살아 있을 때에 선악과를 제거해야지 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살았을 때 선악과를 제거했다면 그는 죽음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 되므로 육신 자체가 죽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이 바로 선악과를 제거하는 방법이요, 죽음을 제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

“나라는 의식(意識)을 제거하는 것이 윤회(輪廻)의 고통에서 해방(解放) 되는 것”

나라는 의식(意識)을 제거하는 것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윤회(輪廻)의 탈을 벗고 해탈(解脫)하여 열반(涅槃)에 드는 것이다. 그 윤회의 탈을 벗으면 죽지 않는 영생체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죽는 순간 그 고통이 멈추리라고 생각

하지만, 자신의 연장체인 자식이나, 형제의 자식 속에도 자신의 피가 있으므로 그 속에서 그 고통은 연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윤회인 것이다.

인류의 발생 이래로 면면히 이어져 온 이 윤회의 고통을 끊어주는 자가 인류의 구주요, 진정한 해탈자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

“승리절(勝利節)을 경축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절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긴자가 되신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마귀 육에 갇혔던 온우주가 6,000년 만에 육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니,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6,000년 만에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니, 온 우주가 고통과 사망이 다시없는 승리의 개가를 영원토록 부르게 된 것입니다.

1980년 10월 15일 이 사람이 밀실에서 이긴자가 되었다고 한 그날, 지계를 지고 산엘 가니까, 일제히 나무와 풀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한 다음에 춤을 추는데, 여러분들 나뭇가지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도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굵은 나무가 허리를 구부려서 절을 하고 도로 서는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신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이 기뻐 날뛰며 춤추는 기쁜 일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는 삶

자신감을 기르는 원칙

요트는 돛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느냐에 따라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한다. 과거 뚝단배로 바다를 항해하던 시절 강한 바람이 불면 대부분의 선장은 배가 전복될 것을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파도에 밀리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지만 노련한 선장은 거친 파도와 바람을 이용하여 배를 평소보다 더 빠르게 목적지가 지도당하게 한다.

이는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자기 암시와 확신의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자기 암시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끝없는 낙원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현대 성공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황금률’에 제시된 다음의 글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만일 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질 것이다. 도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이기고 싶지만 힘들겠다고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패배 의식은 나를 이 세상 밖으로 밀어낸다. 성공은 개인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 그 모두는 나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만일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도 그렇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높은 곳을 생각해야 하고, 상을 받으려면 우선 나에게 대한 자신감부터 가져야 한다. 강하다고 해서 삶의 승리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해서 삶의 승리를 거두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 가서 삶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스스로 승리하리라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두뇌를 구성하는 조직 아딘가에는 평소애 잠자고 있다가 적절한 자극만 부여된다면 놀랄만한 수준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길러보도록 하자.

첫째, 나에게 뚜렷한 인생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둘째, 내 소망을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될 것임을 잘 알고, 매일 30분씩 성공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라.

셋째, 어떤 소망이든 끈기 있게 간직한다면 언젠가는 적절한 성취 방법이 생성됨을 잘 알고, 매일 10분씩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라. 넷째, 목표를 종이 위에 적어둔다면 내가 나아갈 길이 더욱 뚜렷이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목표 달성의 충분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노력하라.

다섯째, 신뢰와 정의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행동은 하지 않으며, 내 힘과 타인의 협력을 조합하여 성공을 달성하라. 이를 위해선 우선 남을 도울 것이며 그들도 나를 돕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소인 미움이나 질투, 이기심, 비판적 태도를 버리고 주변 사람 모두에 대한 사랑을 키우도록 노력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들도 나에게 대한 신뢰를 보여줄 것이다.*

경축 45주년

승리절

산천초목이 춤을 추며 경배하다

이 사람이 밀실에서 이긴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날이 80년 10월 15일이라고 그랬조?

이긴자가 되었다고 한 그날 이 사람은 지계를 짙어지고 산에 갔던 겁니다.

지계를 지고 산에 가니까 일제히 나무와 풀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한 다음에 춤을 추는데, 여러분들! 나뭇가지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거둡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2025년 10월 15일